

# 고용한파 지속...지난달 광주 고용률 전국 최대폭 감소

### 취업자 수 75만 9000명 전년비 2.2% 줄어...6개월째 하락 전남 일자리 질 악화...실업자 수 5만 2000명, 실업률 5.1%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 고용률의 경우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줄어들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77만 6000명) 대비 1만 7000명(-2.2%) 줄었다. 광주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6개월째로, 지난해 12월(-2만 1000명) 이후 감소폭이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고용률은 59.4%로 1년 전(60.6%)보다 1.2%p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어 서울(-1.0%p), 대구(-

0.9%p), 제주(-0.7%p), 전북(-0.6%p) 등 순으로 고용률 감소폭이 컸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광공업(4000명·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00명·0.5%)은 증가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명·-6.4%),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5.4%), 농림어업(-4000명·-19.7%) 등은 감소했다. 일자리 질은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000명·-0.4%)는 소폭 감소했지만 일용근로자(-5000명·-14.8%) 감소폭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광주시 실업자 수는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2000명(8.2%) 늘었고, 실업률도 4.0%로 0.3%p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96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97만명) 대비 8000명(-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 역시 63.4%로 1년새 0.4%p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00명(4.5%)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건설업(6000명·7.8%),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3.8%) 등도 증가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1년새 2만 2000명(-6.3%)이나 감소했다. 이 밖에도 광공업(-1000명·-0.5%), 농림어업(-3000명·-1.5%) 등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일자리 질 역시 대폭 악화됐다. 지난해 전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 2000명(-7.5%) 줄어든 39만명을 기록했지만, 임시근로자는 2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남 실업자 수는 5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1000명(27.0%)이나 증가했고, 실업률도 1.1%p 오른 5.1%에 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 트럼프 행정부 만난다

### 대한상의 '통상 사절단' CEO 26명 16~19일 미국 방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오는 19일 미국으로 향한다.

조 부회장이 포함된 사절단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부를 만나 여러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계획도 선보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

사절단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사업장, 성기현 현대자동차 사장 등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26명이다.

한국의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 의 모범 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절단은 방미 첫날(19일)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되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 디너에도 참가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절단은 갈라 디너에서 국내기업의 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을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경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제·산업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역선폴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용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이다.

HS효성 관계자는 "국내 제계에서도 손꼽히는 '민간외교관'인 조 부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민간 경제사절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상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변화 교육'

### 다음달 6일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3월 6일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변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정재환 관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정책의 변화'와 '환율 변동성과 관세정책의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강의시간은 3시간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최근 미국

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對美 수출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관련 상담 및 무역증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전남 이모티콘 공모전'

### 선정작 'OGQ 스튜디오' 등록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3월 14일까지 K-콘텐츠 시대에 발맞춰 전남지역의 문화 발전을 목표로 '전남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남도 스토리뱅크 구축 운영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정지형 이모티콘, 모션형 이모티콘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전남도를 소재로 한 관광지, 특산물, 문화, 설화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이모티콘을 제출하면 된다.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전남 거주 학생 및 일반인 누구

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 연령 및 팀 규모는 제한이 없다.

서면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이모티콘은 네이버의 콘텐츠 제작 플랫폼인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등록된다. 이를 통해 공모전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과 지속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모티콘은 진흥원 브랜드 스티커로 제작해 배포 및 홍보된다. 또 진흥원장과 함께 총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는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eejae@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신세계 "편안한 신발 만나보세요" 16일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신발 편집매장 '세이프 힐즈'에서 직원들이 '르무통' 신발들을 선보이고 있다. 르무통은 '벗고 싶지 않은 편안함'을 모토로 만들어진 신발들이 대표적이다. 해당 브랜드 제품들은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은 신발로 유명하며, 메리노 울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과 신고 벗기 편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광주신세계 제공>

## 전남신보, 순천지역 소상공인에 30억원 지원

### 순천시와 3억원 출연 협약 체결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가 지난 11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순천시와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순천시는 전남신보에 3억원을 출

연하며, 전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순천 소상공인에게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해보다 출연금 규모를 두 배로 늘렸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보증은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

며, 순천시자금과 연계하여 연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15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순천시와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소상공인 에어컨·냉장고 바꾸면 40% 지원

### 17일부터 고효율 기기 교체 신청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구입비의 40%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전력의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개 제품을 새로 설치할 경우 구입비의 40%를 품목별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

자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도는 품목별로 작년과 올해를 합산해 적용한다. 가령 작년 100만원의 냉난방비와 60만원의 냉장고 교체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는 올해 추가로 60만원과 100만원의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과 별도로 식품 매장의 냉장고 문 닫기 지원 사업도 올해 40억원 규모로 이어진다.

기준에 문이 닫히지 않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추가로 닫거나,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들어간 돈의 40% 수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한국 대기업 임금 수준 일·EU 평균보다 높아

### 중소기업과 격차 가장 커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과 인상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구매력평가환을 기준 8만 7130달러로 전체 22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EU 20개국 평균(8만536달러)보다 8.2% 높았고 일본(5만 6987달러)보다는 52.9% 높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기업 임금 수준도 한국이 156.9%로 EU 평균(134.7%), 일본(120.8%)보다 각각 22.2%포인트, 36.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전체 22개국에선 그리스(166.7%), 프랑스(160.6%)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대기업 임금 인상률도 높았고 그에 따라 대·중소기업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조

사됐다. 한국 대기업 임금은 2002년 2741만원에서 2022년 7061만원으로 157.6% 올랐지만, EU 대기업은 같은 기간 84.7% 올랐고 일본 대기업은 6.8% 줄었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한국 57.7%, EU 평균 65.1%, 일본 73.7%였다. 2002년에는 일본(64.2%), 한국(70.4%), EU 평균(76.6%) 순이었다.

한국 중소기업 연 임금총액은 5만317달러로 전체 22개국 중 10위였다. 일본(4만 2022달러)보다 19.7% 높았고 EU 평균(5만 2398달러)보다 4.0% 낮았다.

1인당 GDP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한국(90.6%), 일본(89.1%), EU 평균(87.6%)이 비슷했다. 전체 22개국에선 5위에 해당했다.

10인 이상 사업체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이 5만 9191달러로 EU 평균(6만 7214달러)보다 13.6% 낮고 일본(4만 8729달러)보다 21.5% 높았다. 대기업 기준은 한국은 5000인 이상, 일본과 EU는 1000인 이상이다. /연합뉴스

### 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약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가 지난 14일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와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주요 내용은 올해 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주체적 역할 수행과 책임에 대한 사항이다. 이날 약정 체결을 통해 2개 공동훈련센터는 올해 총 44개 과정에 재직자와 채용예정자 1020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목포대학교는 '조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특수 융합' 등 25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는 '전기자동차 진단실무' 등 19개 과정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박태훈 전남서부지사장은 "이번 사업이 우리 지

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로도복권 (제 115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9	27	28	38	39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84,854,250	2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4,775,224	110
3	5개 숫자일치				1,316,215	3,742
4	4개 숫자일치				50,000	177,373
5	3개 숫자일치				5,000	2,826,061